

# 국토부 산하기관 CEO 교체 시즌... 하마평 무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들이 차기 CEO(최고경영자) 선임에 나서면서 업계에 하마평이 무성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장 사퇴 및 임기 만료에 따라 차기 사장 후보를 찾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일영 사장이 오는 2월 1일 3년의 임기를 마치는데 앞서 차기 사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달 14일 사장 후보 접수를 마무리했으며, 최근 5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임 사장 후보로는 국토부에서 항공정책을 다뤘던 최정호 전 2차관, 여형구 전 2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차관은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부 항공정책실 실장 등을 지냈다.

여 전 차관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정계에선 문학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남

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문 전 위원은 지난 코레일 사장 공모 때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공운위는 이르면 이달 중 최종 후보자 1~2명을 정해 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를 열어 단일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을 선임한다.

코레일도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신임 사장 후보를 모집 중이다. 오영식 전 사장이 지난해 2월 14일 취임해 2년의 임기를 시작했으나, 잇단 철도 사고로 인해 10개월 만에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면서 차기 사장 후보를 일찍 찾게 됐다.

오 전 사장이 사퇴한 지 한 달이 지났으



사장 후보 최정호·여형구 등 거론  
공운위, 이달 최종 후보 통보 예정

나 아직까지 차기 사장 후보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차기 사장 후보자의 '출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차기 사장으로 정계 인사보다는 관료 출신 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코레일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해 철도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레일 역대 사장을 보면 신광순 초대 사장과 최연해 6대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철도와 무관한 정관계 인사였다.

또 한편에서는 코레일의 최대 과제인 SR 수서고속철도와 통합 등을 고려하



잇단 철도사고로 전 사장 사퇴  
전문성 있는 내부 인사도 예상

면 철도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내부 출신 인사의 승진도 예상되고 있다.

코레일은 사장 모집 공고가 끝나면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추천을 거쳐 공운위에서 심의·의결 받는다.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중 신임 사장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조만간 차기 사장 인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3년)는 오는 3월 24일자로, 퇴임 쪽으로 거취가 확정되면 이달 내 차기 사장 공모가 시작될 전망이다.



박상우 현 사장 유임 시각이 우세  
3기 신도시 등 관료 인사도 예측

업계에선 박 사장의 유임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사장은 국토부 1급 관료 출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 건설, 도시재생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어서다.

다만 박 사장이 더 큰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 연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럴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등 후속 정책 사업을 맡을만한 관료 출신 인사가 올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LH도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공모 후 임추위 추천, 공운위 의결, 국토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의 과정을 거쳐 차기 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구분	2018년 12월말	2018년 11월말	2017년 12월말	변동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국	3,376	3,304	3,117	2.16%	8.28%
서울	7,398	7,369	6,706	0.40%	10.31%
수도권	5,041	5,024	4,547	0.32%	10.85%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3,594	3,409	3,221	5.45%	11.59%
기타지방	2,614	2,581	2,503	1.30%	4.44%

## HUG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 1114만원

전월 대비 2% 상승... 가구수도 늘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전국 민간아파트 m²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보다 2.2% 오른 33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3.3m²(1평)로 환산하면 약 1114만원이다.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작성기준 월 포함)의 자료를 평균한 최근 1년간의 평균 가격으로 작성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m²당 평균 분양가격은 739만8000원(3.3m²당 2441만원)으로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0.31% 올랐다.

수도권은 504만1000원(3.3m²당 1664만

원)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359만4000원(3.3m²당 1186만원)으로 5.5%, 기타지방은 261만4000원(863만원)으로 1.3%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분양이 없었던 울산을 제외하고 10개 지역은 전월보다 상승, 2개는 보합, 4개는 하락했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60m² 초과~85m² 이하가 가장 높은 2.5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 60m² 이하 2.35%, 102m² 초과 1.93%, 85m² 초과~102m² 이하 0.52%가 뒤를 이었다.

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는 총 1만3968가구로 전월보다 29.4% 늘었다. 전년 동월(2만3833가구)에 비해서는 31% 감소했다. /김승호 기자

### 기보

#### 기술력 우수 기업 특별보증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우수한 저신용도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제도는 기술성,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연체나 체납 등

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연체대출금 보유,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기업 가운데 기술평가결과 A등급 이상인 기술력 우수기업이다. 차입금 또는 조세 공과금 50%(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 이상 상환한 기업은 평가등급 BBB 등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중소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 머리 맞댄다

중기중앙회·박정 의원, 토론회 개최  
정부 연구 결과문, 기업인과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모델 토론회'를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가능성과 남북관계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을 주제로 활약하기 위해 과거의 경협 형태보다 더욱 고도화되고 북한과 상생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연계하는 남북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그 결과물을 전문가, 기업인들과 논의하는 자리다.

중기중앙회 양갑수 통상협력실장은 "북한의 권역, 지역별, 바람직한 진출 업종과 형태를 제시하고 남북 상생협력차원에서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장의 진행으로 이재호 중

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을, 안귀산 중국 연변대 교수가 '두만강 지역의 중·북경협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브라이언 마이애스 동서대 교수, 팜 뚜엔 주한베트남 상무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아리향·금실... 농진청, 국산 딸기 보급 확대

품종 다양화로 내수·수출 경쟁력 ↑

농촌진흥청이 최근 소비자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 좋은 국산 딸기 보급 확대에 나섰다.

농진청은 16일 딸기 '아리향'과 '금실', '메리퀸', '베리스타' 등 새 품종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전남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리향은 단단하고 향이 좋으며, 과일 무게가 25g 이상인 대과 생산 비중이 70%를 넘는다.

금실은 평균 당도(11.2브릭스)가 높고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며 무게는 20.5g으로 중대과형 품종이다.

메리퀸은 당도(12.1브릭스)가 높고 열매가 단단하고 형태가 좋아 장거리 수송에도 유리하며, 베리스타는 생산성과 유통성이 좋으며 흰가루병, 탄저병, 응애 등 각종 병해충에 강하다.

이들은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단단한 특성으로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출 유망 품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국산 딸기 품종 '아리향' /농진청

한편, 이날 최근 5년 간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품종의 특성을 주제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에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농촌진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도입하고 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동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딸기 품종을 다양화함으로써 내수와 수출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딸기 새 품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근로복지공단

#### 재해공무원 22명 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공무원 요양결정을 받은 재해공무원 22명에게 전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헌업 복귀를 지원했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2017년 3월 재해공무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직영병원을 통해 재해공무원에게 본인부담 없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진료계획을 세우고 1대 1 집중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직무수행을 위한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복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재해공무원이 재해발생 후 적절한 때에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을 강화하고, 산재보험 재활시스템이 재해공무원의 직업복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